

ISSUE BRIEF



도민 안전의식 수준 조사 비교 분석

박근오 / 충남연구원 전임책임연구원
keunoh@cni.re.kr

| 안 | 전 | 충 | 남 |

ISSUE BRIEF 01

SUMMARY

조사의 개요 및 의의



분야별 안전의식 수준 비교 분석

- 충남의 전반적 안전도
- 안전의식 수준
- 충남의 집단별 안전의식 수준
 - 도민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 근로자
- 안전관련 정보의 습득 경로
- 안전문화 교육 장소
- 안전문화 교육의 중점 적용대상



시사점 및 정책방향 제언

1. 조사의 개요 및 의의

-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나 인식, 가치관으로 나타나며, 안전을 일구는 기반임
 -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이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움과 훈련, 교육을 통해 그 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게 됨
- 그동안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추진해온 교육 및 홍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¹⁾ 하였으며, 전년도(2015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 실시
 - 본 고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안전도,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교육 등 추진실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안전문화 의식에 대한 인식 및 수준을 분석하고,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표-1. 안전관련 정보의 습득 경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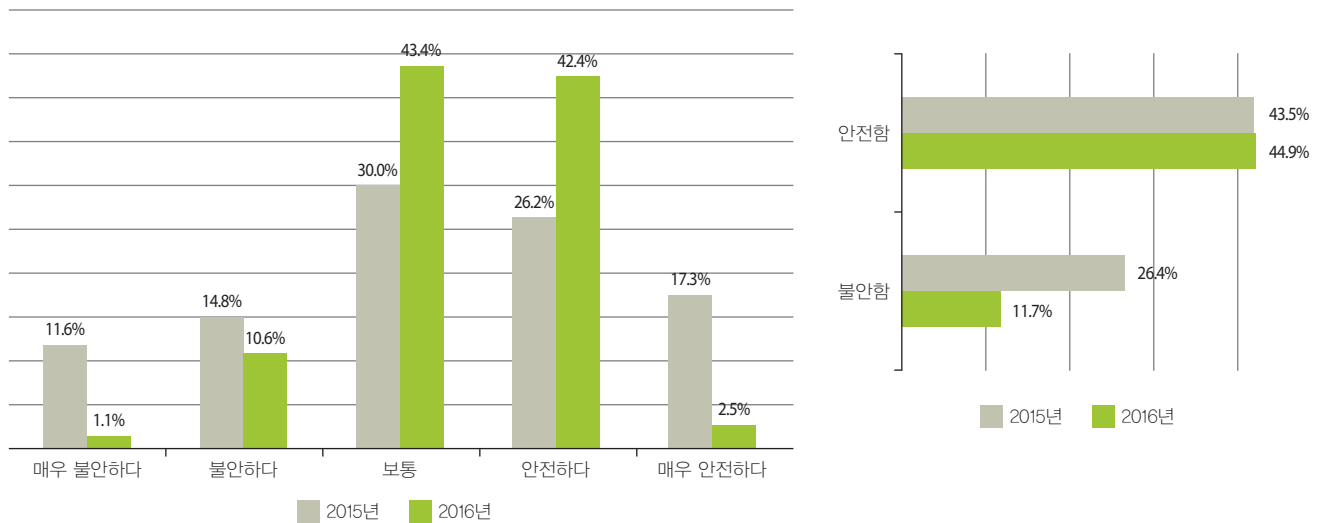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조사방법	1:1 대면조사, 설문지 배포 및 회수
조사대상	충남도민, 15개 시·군 공무원
유효표본	1,053명(95% 신뢰수준 $\pm 2.96\%$)
조사기간	2016.11 ~ 12

2. 분야별 안전의식 수준 비교 분석

충남의 전반적 안전도

- 현재 충남의 전반적인 안전도에 대하여 안전하다(매우 안전함, 안전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44.9%를 차지하고 있어 불안하다(매우 불안함, 불안함)라고 응답한 비율(11.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와 비교할 때 안전하다는 응답은 43.5%에서 44.9%로 1.4P 증가한 반면, 불안하다는 응답은 26.4%에서 11.7%로 크게 완화되었음
- 즉, 전반적인 안전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보통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고 매우 안전하다는 적극적 응답층이 줄어들어 도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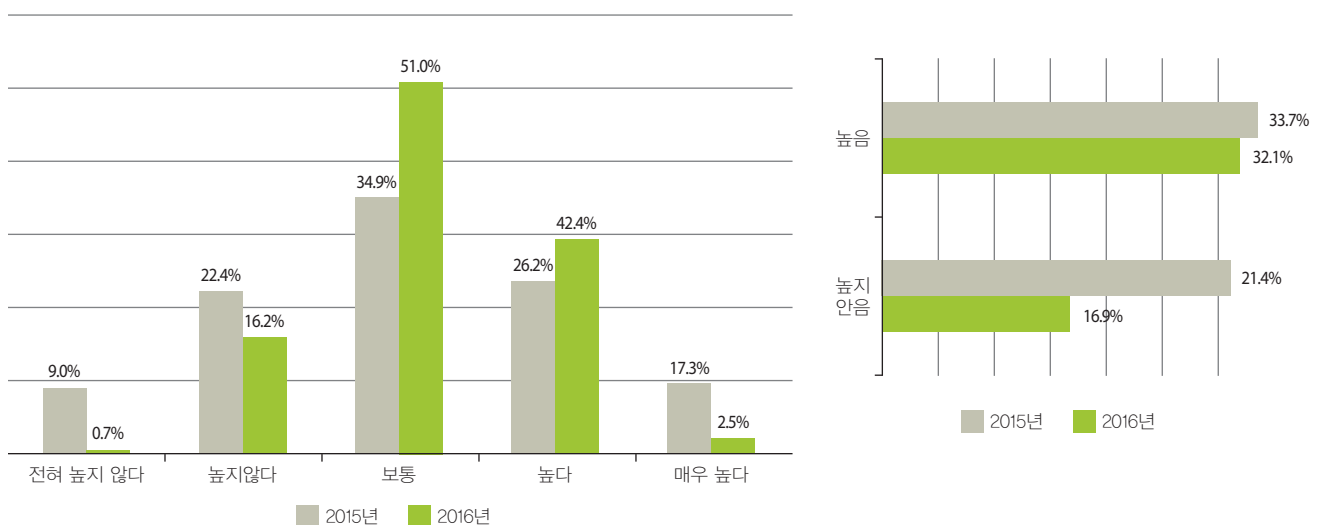
1) 도민 안전의식(인식) 수준 조사(2016), 충남연구원



〈그림-1. 충남의 전반적 안전도 비교〉

충남의 안전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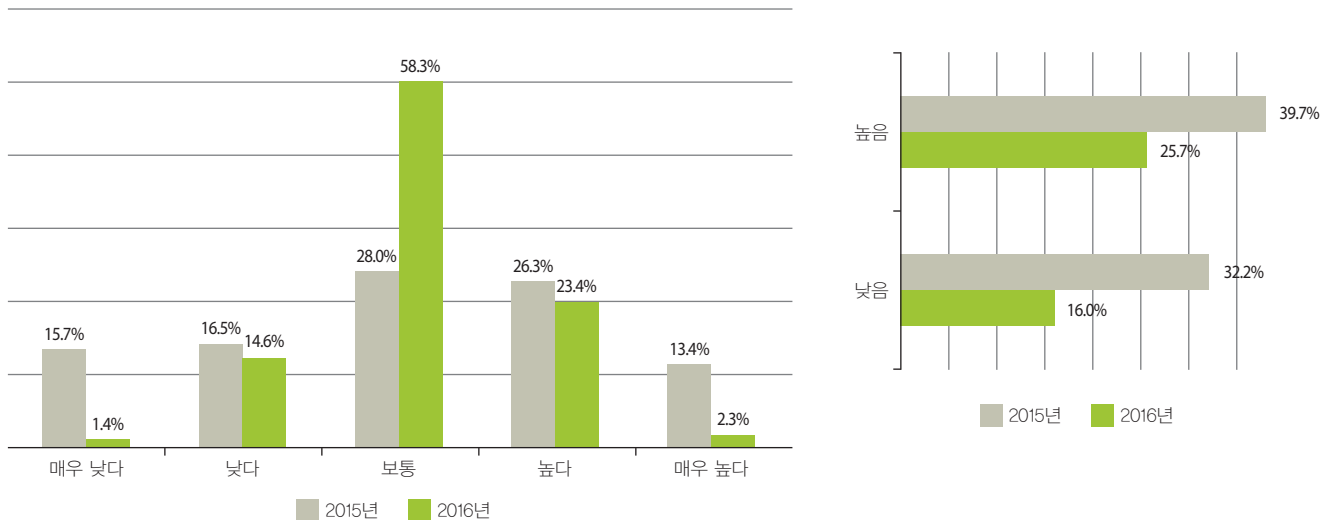
- 현재 충남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하여 높다(매우 높음, 높음)라고 응답한 비율은 32.1%로서, 높지 않다(전혀 높지 않음, 높지 않음)고 응답한 비율(16.9%)보다 높게 나타남
-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높다는 응답은 33.7%에서 32.1%로 다소 낮아진 반면, 높지 않다는 응답은 31.4%에서 16.9%로 크게 완화되었음
- 전반적으로 충남의 안전의식 수준은 높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여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림-2. 충남의 안전의식 수준 비교〉

충남의 집단별 안전의식 수준(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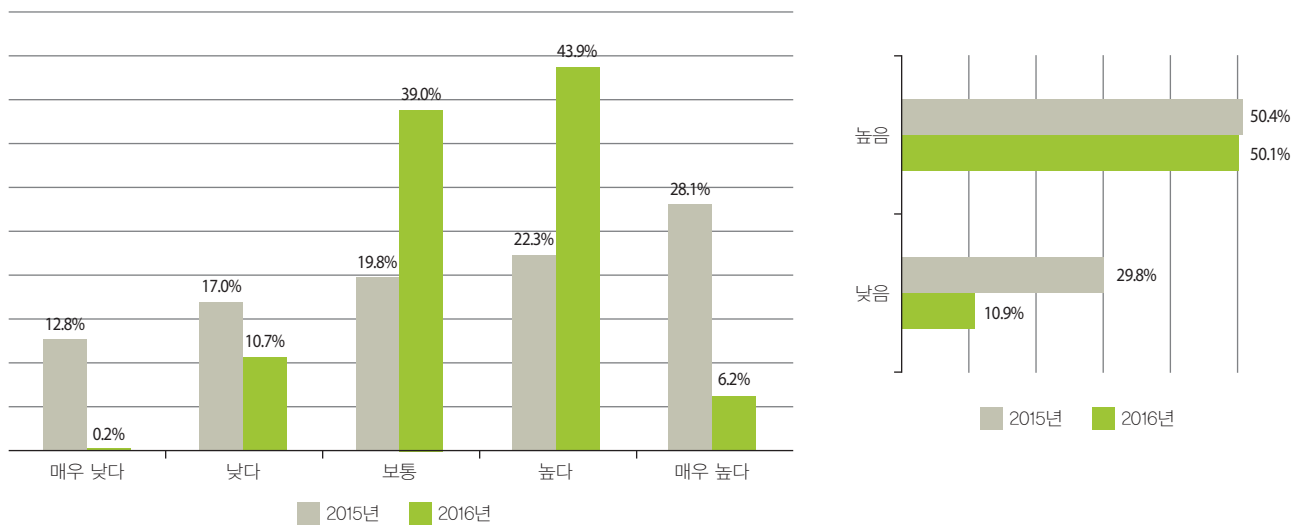
- 응답자가 생각하는 충남 도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높다(매우 높다, 어느 정도 높다)는 응답이 25.7%로 낮다(매우 낮다, 대체로 낮다)는 응답(16.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높다는 의견이 39.8%에서 25.7%로 크게 낮아진 반면, 낮다는 응답은 32.2%에서 16.0%로 다소 완화되었음
- 응답자가 생각하는 충남 도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낮다는 부정적 응답이 줄어 전년대비 다소 의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긍정적 응답도 대폭 줄어들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좀 더 적극적인 안전의식 고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그림-3. 집단별 안전의식 수준(도민) 비교〉

충남의 집단별 안전의식 수준(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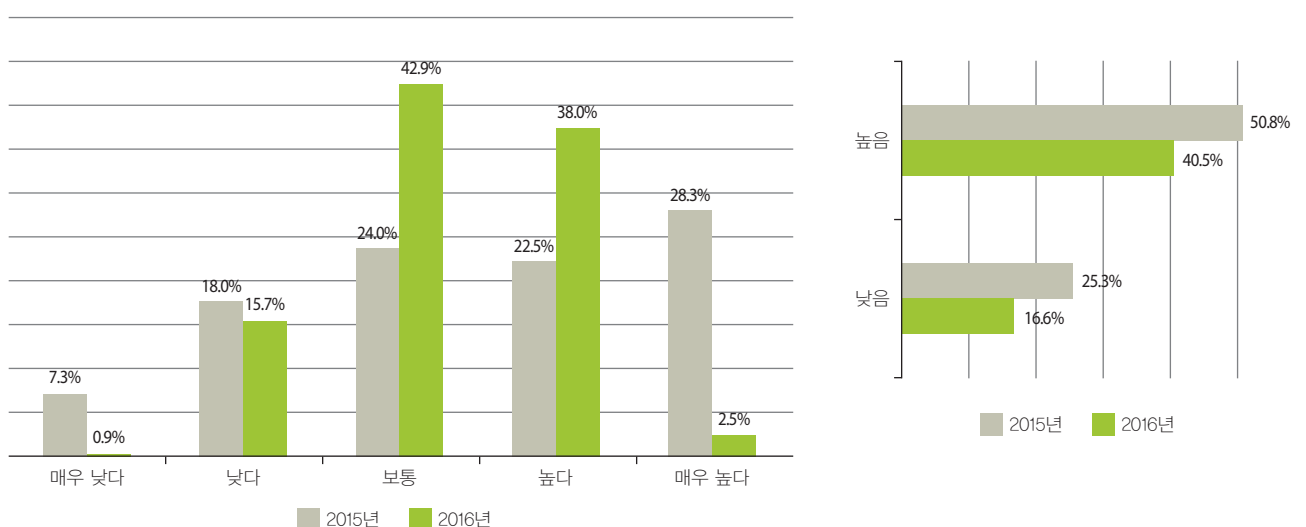
- 응답자가 생각하는 충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높다(매우 높다, 높다)는 응답이 낮다(매우 낮다, 낮다)는 응답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높다는 응답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50.4%→50.1%), 반면 낮다는 응답은 29.8%에서 10.9%로 크게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즉, 응답자가 생각하는 충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4. 집단별 안전의식 수준(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비교〉

충남의 집단별 안전의식 수준(근로자)

- 응답자가 생각하는 충남 지역내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높다(매우 높다, 높다)는 응답이 낮다(매우 낮다, 낮다)는 응답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높다는 의견은 50.8%에서 40.5%로 다소 낮아진 반면, 낮다는 의견은 25.2%에서 16.6%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충남도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5. 집단별 안전의식 수준(근로자) 비교〉

안전 관련 정보의 습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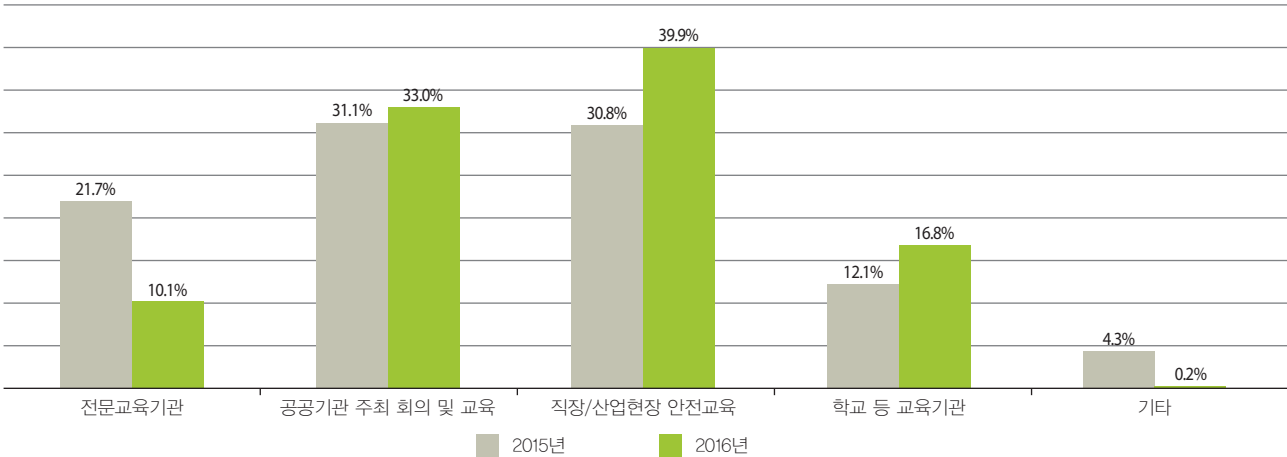
-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경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TV나 라디오와 같은 방송을 통해 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뉴스, 광고, SNS 등을 통해서도 안전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년도 조사와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매체나 인터넷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홍보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정보전달 및 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2 안전관련 정보의 습득 경로 비교〉

순위	2015년	2016년
1	방송(라디오/TV)	방송(라디오/TV)
2	인터넷(뉴스, 광고, SNS 등)	인터넷(뉴스, 광고, SNS 등)
3	교육기관(학교 등)	주변사람
4	안전관련 관공서/공공기관의 홍보	인쇄매체(신문 등)

안전문화 교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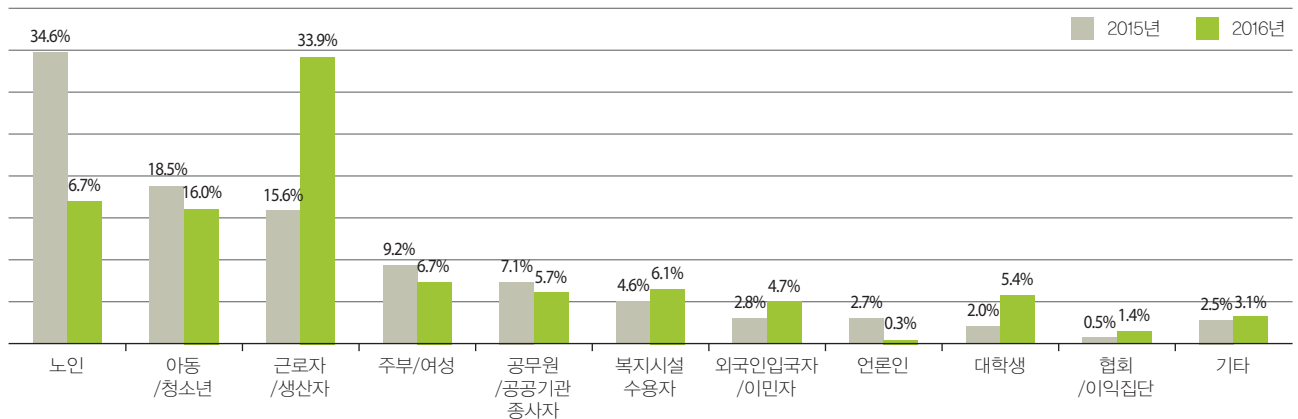
- 안전문화교육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이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주최 회의나 교육, 학교 등 교육기관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에 비해 직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교육 등 대부분 증가한 반면,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공장, 산업단지 등의 증가에 따라 사업장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화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좀 더 보강하고, 특히 도민들에 대한 안전문화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기회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그림-6. 안전문화 교육장소 비교〉

안전문화 교육의 중점 적용대상

- 안전문화 교육의 중점 적용대상에 대한 조사에서 근로자 및 생산자, 노인, 아동 및 청소년, 주부 및 여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 조사에서는 노인, 아동 및 청소년, 근로자 및 생산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금번 조사결과와는 우선순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으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교육의 중점 실시의 필요성은 동일하게 나타남
- 따라서 산업현장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및 청소년, 외국인입국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그림-7. 안전문화 교육의 중점 적용대상 비교〉

3. 시사점 및 정책방향 제언

- 안전도 및 안전의식 수준 제고 방안 모색
 - 전반적인 안전도는 전년도 조사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보통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상당히 증가하고, 매우 안전하다는 적극적 응답층이 줄어들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의 마련이 필요
 - 한편, 전반적으로 충남의 안전의식 수준은 높다는 의견이 높지 않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안전의식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발생한 지진의 영향과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유해화 학물질사고, 작업장내 안전사고 증가 등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도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안전문화교육의 내실화 및 안전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모색
 - 안전문화 교육 장소를 전년도와 비교한 결과를 보면 직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화 교육이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교육 전문기관의 비중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작업장내 안전사고의 위험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화 교육은 전문성과 내실화를 더욱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전관련 정보의 전달 및 홍보는 IT의 보급 및 활용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존의 방송매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활용이 필요함

- 금년 1월 안전충남비전(안전충남 2050) 선포를 비롯하여 지역안전지수 향상대책 등 안전과 관련된 본격적 대응을 추진해 나가려는 노력속에 안전의식의 고양 및 안전문화 교육의 내실화를 고려한 정책 개발 및 추진 필요

주요 행사 | 안전한 충남,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한 「안전충남비전 2050」 선포식

■ 행사 개요

일 시 2017년 1월 1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

참석인원 약 300여명

대 상 충남도지사, 도의회 의원, 안전충남비전위원, 안전관리책임기관장, 재난·안전관련 단체 및 관계 공무원, 타운홀미팅 참석자 등

주요내용 안전충남비전 2050 선포 및 안전관리책임기관간 협약



비전

행복한 안전 충남! 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립니다.

목표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편안하고
튼튼한
안전생활터 조성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용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전략

-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 전면적 생활안전문화 운동 전개
- 정책과 제도의 안전 요소 강화

- 안전·안심 위협요인 저감
-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
-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조성

-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 향상
-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 도민주도형 안전활동 영역 확대
- 다양한 안전 네트워크 구성
- 지역 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